

“스타트업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창업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선발 약 3개월 간의 교육·평가 거친 후 1억 우수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2019 농식품 창업경연대회(투자유치형·마케팅형) 예선심사 결과 총 4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예선 평가에서는 총 446개 팀이 참여해, 각 유형별로 예선 경쟁률 약 15:1(투자), 6:1(마케팅)을 기록, 농식품 벤처·창업 경연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예선 평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7일~9일까지 온라인 서류심사를 거쳐 19일~20일 발표심사를 통하여 최종 본선 진출팀(총 45팀/투자20팀/마

케팅25팀)을 선발했다. 본선 진출팀은 투자유치형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분야가 9팀(45%)으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형은 간편식류 분야가 8팀(3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투자유치형의 경우 경기 지역의 팀이 40%, 마케팅형은 서울이 28%를 기록했다.

마케팅형의 경우 창업·홍보·대중형 유종에 관한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서류 심사를 통해 5배수(125팀)를 선발 후 상품성, 차별성, 가격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투자형은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누가 투자를 많이 받을 지를 겨루는 유형인만큼, 성장 가능성, 목표 시장의 매력도 등 투자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예선평가의 관문을 통과한 팀들에게는 품평회, 모의 투자 발표가 치러질 본선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재단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진 본선 평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참가자들에게 교육·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케팅형은 참가자들이 제작한 상품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만큼, 전문가 및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품평회를 통해 본선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결선 진출팀 15팀이 선발

된다. 본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실제 상품에 대한 평가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투자유치형은 모의 투자 발표(IR)를 통해 본선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에 앞서 조별 상담, 개별 100초 홍보 영상 촬영 등 투자 유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본선까지 거치면 결선에서는 최종 판매 결과(마케팅형) 및 모의 투자 금액(투자형)을 바탕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최종 우승팀한 1팀에는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결선진출팀(인)들에게는 투자 유치 프로그램 연계, 온·오프라인 농식품 창업제품 전용관 입점기회, 온라인 특별 기획된 참가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높인다

농진청, 내달부터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실시... 경제활동·문화 등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9 농업인 등

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

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농촌 지역 4,000가구로, 현지조사를 맡은 커뮤니티의 조사 요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의 여러 생활영역에 대해 5년 주기(1년차 종합

조사, 2~5년차 부문별 조사)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이 대상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미희 농촌환경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3일 한정 타임세일 이벤트 오픈

이스타항공이 3일 한정 타임세일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노선이 오픈되어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노선은 6개 동남아·동북아 노선으로 26일 오픈일 기준 오전 10시 코타키나발루, 11시 블라디보스토크, 오후 2시 방콕노선이 오픈된다. 해당 이벤트 탑승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편도총액임기 기준 최저가 ▲인천-코타키나발루

128,5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96,500원 ▲인천-방콕 103,500원 ▲부산-방콕 101,500원 ▲인천-블라디보스토크 95,400원 ▲부산-블라디보스토크 91,6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는 짧은 기간 동안 오픈되는 타임딜 형태의 특가 이벤트로, 매월 특정 노선을 선정해 고정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미·중 무역전쟁에 한반도체·일자동차업체 불뚝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반도체회사와 일본 자동차회사 주가가 26일 하락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3일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와 5%의 관세를 오는 12월 15일부터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의 보복 관세에 맞서 5500억달러(약 666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지시했다. 미중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우려로 중국 수출용 미국 공장을 둔 نيسان, 도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의 주가가 급락했다. نيسان과 도요타는 가장 초반 2%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미쓰비시는 3% 이상 하락했고 혼다는 3% 가까이 떨어

졌다가 소폭 회복됐다.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نيسان과 도요타, 미쓰비시, 혼다, 마즈다,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회사는 미국 28개주에 24개 제조공장과 45개 연구개발 설계시설, 39개 유통센터를 갖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이다.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과 미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회사들도 26일 가장 초반 주가가 하락했다고 CNBC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한때 1.5% 가량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3.36%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일종의 중간재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대국의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9일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실시 예정인 청문회는 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질의 이후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주 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 7분, 5분으로 배정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문화 욕구 해소를 한방에!

한전, 지역 문화예술인과 손잡고 'Shall We Dance' 행사 개최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해 주는 공연이 열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인 'Shall We Dance'가 오는 28일 저녁 8시 전북혁신도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새울립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문화대장간초연이 주최하는 이번 문화공연에는 전북혁신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정규 현대무용가, 김유리 라틴체조지도자, 박근영 댄스스포츠리턴프로선수, 우석대태권도사범단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Shall We Dance"

일자: 2019. 8. 28. (수) 20:00
장소: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 새울립홀
주최: 한전, 문화대장간초연, 한국전기안전공사
후원: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몰리마켓도 운영됩니다.(17사)

지역예술동호회에게는 무대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지역주민들에게는 즐거운 문화경험을 선사할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은 자유석(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어린이 물놀이 시설개방 행사인 '썸머페스타'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가 최근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와 '화훼분야 사회적 가치 제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 화훼사업센터,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와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화훼사업센터는 최근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와 '화훼분야 사회적 가치 제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유와 힐링 등 화훼분야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예치료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치유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원예치료를 확산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화훼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T 화훼사업센터는 경증 치매노인, 장애인 및 우울증 질환 이웃 등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상을 연간 50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이원기 aT 화훼사업센터장은 "화훼분야 일자리 창출과 원예치료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